

기후변화, 구조적 폭력, 그리고 공생*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역동적 균형

윤이실 (연세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본문

1. 기후 위기와 구조적 폭력
2. 기후 변화가 공생을 위협하는 두 가지 측면: 생태학적 위기와 사회 경제적 위기
3. 기후 불의에 대한 대응: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역동적 균형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3>

* 본 논문의 “3.1. 시민권의 배타성 비판”의 내용은 저자의 논문 “Cosmopolitanism: The Foundational Ground for a More Inclusive Understanding of Belonging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Stateless Women” (*International Migration* 58.2 (2020): 67-79)에서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 ABSTRACT •

Climate Change, Structural Violence, and Symbiosis: The Dynamic Equilibrium Between Cosmopolitanism and Patriotism

Assistant Prof., Yoon, I Sil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value of the complimentary relationship between cosmopolitanism and patriotism for the protection of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injustice.

Cosmopolitanism does not diminish the significance of national and cultural values, and thus does not contradict patriotism. Rather, if patriotism does not end up becoming distorted nationalism that excludes “others,” and seeks nations’ roles to protect all society members of the entire global community, cosmopolitanism and patriotism can possibly complement and reinforce each other.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tributions of the dynamic equilibrium between cosmopolitanism and patriotism to promot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recognition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reality of structural violence in the climate crisis, and promoting their symbiosis with the marginalized.

Key words: Climate Change, Structural Violence, Symbiosis, Cosmopolitanism, Patriotism

I. 들어가는 말

“당신이 오늘 아침 식사를 할 동안, 세상의 반 이상에 빛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상호 연결된 구조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구에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¹⁾

역사적으로 기후 변화는 다층적 측면에서 피조물 간의 공생을 위협해 왔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류는 자연 및 타 피조물을 훼손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과의 상호의존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아왔다. 이와 같은 공생의 파괴는 개인적 상호작용을 넘어 사회 구조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집단은 불이익을 경험하고 생존을 위한 수단을 위협받아왔다. 이러한 ‘기후 불의’의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상호보완성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모든 인간은 인류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상에 기반해 보편 규범의 수립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주의는,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에서 개인의 보편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는 데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²⁾ 이와 동시에 세계시민주의는 국가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애국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애국주의

1) Martin Luther King Jr., “A Christmas Sermon on Peace,” sermon preached at Ebenezer Baptist Church, December 24, 1967.

2) Lauren Contorno, “The Influence of Cosmopolitan Values on Environmental Attitud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Res Publica - Journal of Undergraduate Research* 17.1 (2012): 14-38, 18.

가 타집단을 배제하는 왜곡된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고 세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이 국내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할 때, 세계시민주의는 애국주의와 서로를 보완하며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 위기를 둘러싼 구조적 폭력의 현실에서 개인 및 집단이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보다 소외되고 있는 집단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역동적 균형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주체적 사회 참여로의 지원을 위해 이 두 사상이 추구하는 균형이 어떻게 도덕적 감수성의 회복 및 법적,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문

1. 기후 위기와 구조적 폭력

1) 기후 위기의 원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기후 위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간의 경제 활동, 그리고 그 저변에 뿌리내리고 있는 탐욕이다. 인류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사회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생산하고 발명하며 진보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많은 국가에서 보다 나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 기업 운영과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소비자가 더 많은 금전을 지출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더 많이 개발하는, 또 그 반대로의 소위 '선순환'의 사회구조를 가능케 하였다.³⁾ 자본주의는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기술

3) Alyson Cole and Estelle Ferrarese, "How Capitalism Forms Our Lives,"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22,2 (2018): 105-112, 107.

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금전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유한 투자자들의 자본 제공이 이루어지고, 다음 기술의 발전을 위해 투자에 상응하는 보상을 필요로 한다.⁴⁾ 투자자들이 자본으로부터 더 큰 가치의 창출을 추구함으로써 인해 자본이 더욱 높은 가격으로 자유시장에서 판매되고 그로 인한 수익으로 더 많은 상품이 개발되는 과정이 반복된다.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생산성의 향상과 소비의 증가가 오늘날 많은 국가들의 경제 안정화와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와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인간 개인의 경제적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사회가 형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⁶⁾ 성장과 소비의 이면에는 수요가 많고 그에 상응하여 가격이 높은 사회적 자원 혹은 기술에의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 및 집단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후 위기의 문제는 정치, 경제적 불의의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2) 기후 위기의 원인: 탐욕

이러한 자본주의와 그로 인한 성장, 또 환경 및 경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의 한 요소인 소유와 발전에의 욕구이다. 비판의 대상은 자본주의와 혹은 소비 자체가 아닌 탐욕인 것이다. 생태적, 사회적 문제는 물질 자체가 아닌 인간이 물질과 형성하는 관계로부터 온

4) Fazale R. Rana with Kenneth R. Samples, *Humans 2.0: Scientific,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on Transhumanism* (Covina: Reasons to Believe), 2019, 231.

5) Robert Heilbroner, "Technology and Capitalism." *Social Research* 64.3 (1997): 1321-1325, 1323.

6) 위의 글, 235.

다. 인류는 계속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성취 및 발전하길 원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물질주의적 생활 양식과 사회 구조를 형성해왔다. 지난 200여 년의 시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진보’의 개념을 물질적 진보에 제한시키고, 진보의 추구를 넘어 진보에의 ‘믿음’을 발전시켰다. 진보에 대한 믿음과 욕망이 결합되어 인간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무시한 채, 끊임없이 추구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와 건강 등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해 왔다.⁷⁾ 이러한 부작용은 지속적인 진보를 위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심화되는 미래 사회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⁸⁾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무제한적” 이윤 추구 및 성장은 생태계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자원의 생산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자생 능력의 파괴는 앞으로 보다 악화될 것이다.⁹⁾ 인류가 지금 마주한, 또 앞으로 예측되는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위기 및 사회, 경제적 위기는, 개인적 영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조적 폭력을 가져오는 성장에의 욕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분투할 것을 촉구한다.

7) 위의 글.

8) Robert Heilbroner, “Technology and Capitalism,” 235.

9) Cynthia Moe-Lobeda, *Resisting Structural Evil: Love as Ecological-economic Voc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3), 41.

2. 기후 변화가 공생을 위협하는 두 가지 측면: 생태학적 위기와 사회 경제적 위기

1) 생태학적 위기

기후 변화는 구별되지만 깊이 연관된 두 가지 측면에서 피조물 간의 공생을 위협해왔다. 우선 모든 인류가 몸 담고 있는 지구와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협하는 생태학적 위기를 가져왔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근 수십 년 간 가속화된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토지의 유실, 농경 및 식량 생산의 위기는 자연 환경의 훼손뿐 아니라 질병과 식량 부족, 거주지 파괴 등으로 인류에게도 파국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미 지속적으로 증명된 바 있듯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화학 물질의 발생은 삼림 파괴를 가져왔으며, 열대림의 감소와 지구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하며 해안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위협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적하였듯, 인간의 생활 양식 및 사회, 경제, 문화 활동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한 ‘공공재인 기후가 변화하고 모두를 위한 ‘공동의 집(common home)’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어가고 있다.¹⁰⁾ 생태계의 모든 피조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따라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환경 연구가 요한 록스트롬(Johan Rockström) 또한 이러한 근본적 상호 연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대기권, 수권, 빙하권, 생물권, 지권, 그리고 인류 사이의 통합적인 생물 물리학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호작용 및 순환은 지역과 세계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차원인 동시에 시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 지구의 환경적, 사회적 상태를 결정한다.”¹¹⁾

10)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서울: 한국천주교회의, 2015), 25-28.

11) J. Rockström et al., “Planetary boundaries: exploring the safe operating space for humanity,” *Ecology & Society* 14.2 (2009): 1-32, 23.

기후 변화가 초래한 생태학적 위기는, 인류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개인적, 집단적 소비, 산업활동에 깔려 있는 인간중심성 및 이기심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현재의 기후 위기는 추상적인 정보나 가르침의 제공이 아닌, 통렬한 비판과 근원적인 변화가 추구되어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2) 사회 경제적 위기

기후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생태학적 측면과 더불어, 기후 변화를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사회 구조적 폭력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기후 위기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인류, 특히 사회 취약 계층의 삶을 위협한다. 피조물 집단들의 공생을 도모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와 더불어 인간 집단 간에 발생하는 불의와 억압, 착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이 가지고 소비하는 자들과, 생존 및 존엄한 삶이 위협받고 있는 자들 간의 간극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극심한 수준이다. 또한 양극화만큼 심각한 문제는 기후 위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의이다. 모든 인간이 기후 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환경 파괴에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가장 적은 피해를 입는다. 세계적으로 특권층에 속하는 국가 및 개인들은 '필요 이상의' 소비와 산업활동으로 환경 위기에 주요한 장본인이 된다. 그런 동시에 환경 위기의 상황에서 생존과 안전, 존엄성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 재화를 획득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 노동 등과 관련된 선택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¹²⁾

반면 취약 국가 및 지역의 구성원들은, 기후 변화에 현저히 적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집단이 된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소비와 산업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많은 토착민들은 여전히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지향한다. 하지만 그들은 기후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자원 및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를 피부로 경험하며, 더 나아가 착취의 대상이 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적하였듯, 다수의 빈곤층이 ‘충분한’ 생존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 소수 기득권층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 자원의 상당 부분을 취하며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과잉 개발을 추구한다.¹³⁾ 다시 말해 기후 위기에는 우리 사회의 부와 빈곤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사회, 경제적 불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불의(climate injustice)’ 혹은 ‘환경 불의(environmental injustice)’의 개념으로 표현된다.¹⁴⁾

기후 불의의 대표적인 집단이 기후 난민이다. ‘기후 난민’ 혹은 ‘환경 난민’은 기후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생활 환경이나 생활이 위협을 받아 거주지를 떠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타지로 이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수, 태풍, 지진, 기근, 사막화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여 이주를 강행했고, 2020년 한 해 동안만 3천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¹⁵⁾ 필리핀, 방글라데시, 콩고, 시리아 등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실향민과 해외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12) Moe-Lobeda, *Resisting Structural Evil*, 11.

13) John Paul II, *Sollicitudo Rei Sociales*, Encyclical Letter on the Concern of the Church for the Social Order, Vatican Website, December 30, 1987.

14) Moe-Lobeda, *Resisting Structural Evil*, 13.

15) McAdam J. and Limon M., *Human Rights, Climate Change and Cross-border Displacement: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in Contributing to Effective and Just Solutions*, Universal Rights Group, Policy Report, 2015.

각종 뉴스와 기타 미디어를 통해 기후 난민의 심각성이 보도되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보도되는 경우 외에도 수많은 난민들의 상황이 가려지고 외면당한다. 이들 이주의 표면적 요인은 기후 변화이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언제나 이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주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토지 경쟁과 취약한 국가와 지역으로의 영토 침입, 천연 자원의 착취와 그로 인한 빈곤화이다. 기후 난민의 상당수는 유색인종, 그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미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는 사회 취약계층이다. 그들이 경험하는 침입과 착취는 정치적, 인종적 갈등과 폭력 및 전쟁을 야기하고, 이는 종종 강제 이주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¹⁶⁾ 인근의 다른 빈곤국으로 이주한 난민들은 기존의 생활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며, 선진국으로의 이주는 난민 수용의 문제와 같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인과관계는 환경 위기가 인간 집단 간의 갈등을 내포하며, 따라서 정치, 경제적 위기임을 드러낸다.¹⁷⁾

기후 변화의 원인 및 결과와 더불어 이가 내포하는 사회 불의의 문제는, 기후 위기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기후 위기의 문제가 생태학적 문제인 동시에 토지 경쟁 및 침입과 착취가 연루된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구조적 억압의 근본적인 해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16) Sumudu Atapattu, "Climate change and displacement: protecting 'climate refugees' within a framework of justice and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1.1 (2020): 86-113.

17) N. Myers, "Environmental Refugees," *Population and Environment* 19.2 (1997): 167-82, 175.

3. 기후 불의에 대한 대응: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역동적 균형

기후 불의로 인한 분열과 폭력의 상황에서 공생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 제도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방향성을 제공해줄 잠재력을 갖는다. 각각의 입장이 가치와 효용성 및 위험성 또한 가진 만큼, 어떻게 상호 보완을 하며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1) 시민권의 배타성 비판

전 인류를 모두 동포라고 바라보는 입장을 의미하는 세계시민주의 혹은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는 ‘시민권’ 개념에의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한다. 시민권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은 법적으로 일정 부분 권리를 보호받고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며 소속감을 부여받는다.¹⁸⁾ 물론 시민권의 기능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불완전한 경향성을 보여 왔다.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 미취업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소지했어도, 그들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해 줄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¹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생존을 보장할 식량, 교육, 고용, 보건에의 권리를 비롯해 시민의 평등권 및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왔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통해 국가는 “집단 생활의 구조 및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18) Thomas 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eds. Thomas H. Marshall and Tom Bottomore (London: Pluto Press, 1992), 6.

19) Lydia Morris,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Ideals and Actualiti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3.1 (2012): 39-46, 40.

행사와 영토 지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왔다.²⁰⁾

하지만 시민권의 포용성 이면에는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은 비시민권자를 공동체의 보호와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시키는 배타성이 자리잡고 있다.²¹⁾ 시민권은 (내부를 향해) 수용적이며 동시에 (외부에) 방어적인 성질을 기반으로 “우리”와 “그들” 혹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도록 구성원들을 통제하여, 전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후자를 배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²²⁾ 정치이론가 마이클 왈처는, “국가는 개인과 정부의 연합에 의해 구성되며, (이를 통해) 영토의 보전과 정치적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권의 배타적인 성격을 비판하였다.²³⁾ 결국 국권은 국가 안보 및 공동체의식 양성의 이름으로 타집단에 대한 차별을 양산할 뿐 아니라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민권이 보장하는 혜택과 더불어 이를 통해 드러나는 시민권의 효용성을 인정하되, 그 이면의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소수 집단 혹은 주변 집단이 배제되어 온 역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시민권의 양면적 성격은 한 국가에서 개인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정치적 신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정치적 신분은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포용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지닌다.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20) Kiran Benerjee, “Re-theorizing Human Rights through the Refugee: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Global Justice,” *Refugee* 27.1 (2010): 24-35, 29.

21) Bosniak, L., “Citizenship, Noncitizenship, and the Transnationalization of Domestic Work.” In *Migrations and Mobilities: Citizenship, Borders, and Gender*, eds. S. Benhabib and J. Resnik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9, 127.

22) Todd Sharon, ““Like Travellers Navigating an Unknown Terrain”: Seyla Benhabib on Rights and the Borders of Belonging,” *Utbilding & Demokrati* 15.1 (2006): 109-118, 111.

23) Michael Walzer, “The Moral Standing of States: A Response to Four Critic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9.3 (1980): 209-229, 212.

한 국가에서 영주권자, 난민, 망명신청자 등 특정한 정치적 신분을 부여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신분의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법적 지원의 종류 및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법적 보호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삶의 질조차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시민권 이외의 정치적 신분 역시 이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과의 경계를 나누어 차별을 양산함으로써 포용과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신분을 오용하여 구조적 불의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필요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일 것이다.

2) 정치적 신분의 배타성과 기후난민의 수용 문제

시민권을 비롯한 정치적 신분이 갖는 배타성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차별과 배제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기후 난민이다. 기후 난민은 앞서 언급하였듯, 우선 난민이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폭력의 피해자이다. 이들의 이주 자체가 국가 불안 및 국가 간 갈등의 결과물인 것이다. 하지만 폭력은 이주 후에도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된다. 이주국에서의 기후 난민의 보호와 수용 문제는 어느 이주민의 보호 문제보다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 대규모의 이주민, 특히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기후 난민의 보호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의 문제와 더불어 지역 및 국가 간 갈등 가능성으로 인한 국가 안보 및 정치적 불안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²⁴⁾ 그러나 기후 난민은 취약 국가로부터 이주한 경우가 많으며, 이주

24) Mary DeLorey, "International Migration: Social, Economic, and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n *And You Welcomed Me: Migration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eds. Donald Kerwin and Jill Marie Gerschutz (New York: Lexington Books, 2009), 33.

의 성격을 고려할 때 생존을 위한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 참여의 기회 또한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수용 및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후 난민이 이주국에서 생존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난민 지위 인정의 문제 또한 존재한다.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유엔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우려가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와 같은 우려로 인해서 그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나, 국적이 없고 상주국 밖에 있으면서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우려가 있어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그 국가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²⁵⁾ 따라서 이 정의가 난민 지위 부여의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본국에 박해 혹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난민 지위가 인정된다. 기후 난민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주의 주된 원인이고,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박해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후 난민의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주의 원인에 국가 간 분쟁과 착취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국에서의 박해의 위협은 가시적 근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하다. 기후 난민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단순히 기후 변화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정치적 폭력의 문제라

25)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pened for signature 28 July 1951, 189 UNTS 150 (entered into force 22 April 1954) (‘1951 Refugee Convention’). 난민의 정의는 위와 같으나, 기후 난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국 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국내 실향민 또한 난민으로 분류된다.

는 점이 인식되고, 정치적 신분의 부여와 같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1948)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은 자국내 그리고 타국으로 이주의 권리를 가지며,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²⁶⁾ 비호를 받을 권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비호의 실질적 제공을 위한 국가적, 제도적 차원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 난민이 2050년에는 12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기후 난민의 수용 및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 할 수 있다.

3) 세계시민주의의 의미 및 가치

시민권을 포함한 정치적 신분의 배타성을 비판하며 세계시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한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 인류라는 전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특정 정치적, 공동체적,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넘어, 더 넓은 인류 공동체로 개인의 소속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속 범주의 확대는, 모든 인간이 기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필요성을 천명한다. 모든 개인은 특정한 국적이나 인종, 혹은 다른 인구 통계학적, 사회적 배경에 의한 위치와 소속에 귀속되어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 및 존엄성을 갖는 한 명의 동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적, 법적 인권 보호에 대한 자격을 갖는 것이다.²⁷⁾ 따라서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고

26)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 Korean, 1948,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27) Seyla Benhabib, *Cosmopolitanism and Democracy: Affinities and Tensions*, Lecture to the German Bundestag, delivered on March 13, 2009, 247.

다른 형태의 규제를 가하며 의무를 부여하는 모든 조직적인 형태의 정치 공동체로의 소속을 초월하는 것이다. 세계시민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보편적인 관심사와 필요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개인 및 집단이 상호유기성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기반하여 모든 인간은 세계시민(kosmopolites)으로서,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상호 이해와 관용에 바탕을 둔 전지구적 차원의 상호 의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소속 범주의 확대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시 말해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은 본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권리를 표명함과 동시에 타자 또한 동일한 가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와 같이 거주 중인 국가에서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무국적자와 같이 어떤 국가의 시민권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국가적 소속의 제한 없이 존중받으며, 도덕적 주체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보호와 지원의 개인적 실천은 세계 자본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공동체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자본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의 경우 공동체적 관심을 사유화하고 분리하며, 규범에 대한 사적 논리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공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약화시킨다.²⁹⁾ 세계시민주의는 이러한 위험성을 비판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인류가 시민권 및 정치적 지위의 부재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사회의 주체적 참여자의

28) 위의 글.

29) Seyla Benhabib, *Dignity in Adversity: Human Rights in Troubled times*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1), 94-99.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개인적, 제도적 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4)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상호 보완성

세계시민주의가 주장하는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국가적 뿌리와 소속의 초월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신화에 불과하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물론 현실에의 적용 없이 이론적 이상에 머무는 것도, 학문적 망상으로 전락하는 것도 세계시민주의의 지향점은 아니다. (개인과 가시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타자에 대한 인식과 타자의 수용을 강조하는 접근은, 사회 구조적 배제와 차별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³⁰⁾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다양성 및 타자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변화할 수 있고, 개인이 존재하는 시공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³¹⁾ 하지만 그럼에도 근 20여 년간 세계시민주의의 규범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³²⁾

이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속하는 개인과 세계에 속하는 개인, 그리고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가 갖는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국가적 소속과 국가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초월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애국주의에 대치된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30) Siegfried Weichlein, "Cosmopolitanism, Patriotism, Nationalism." In *Unity and Diversity in European Culture c.1800*, eds. Tim Blanning and Hagen Schulze (London: The British Academy, 2006), 78.

31) Immanuel Wallerstein, "Neither Patriotism nor Cosmopolitanism." In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ed. Martha Nussbaum, (Boston: Beacon Press, 1996), 122-124.

32) Daniele Archibugi, "Cosmopolitical Democracy." In *Debating Cosmopolitics*, ed. Daniele Archibugi (New York: Verso, 2003), 1-15.

특정 국가에 속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두에게 삶의 질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필요성, 또한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애국주의에 비판이 가해져 온 바 있다. 애국주의는 국제적, 보편적 성격을 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사랑의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인식적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규범에서 역시 국민에 대한 의무보다 모든 인류에 대한 의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³³⁾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강경한 세계시민주의자들의 경우,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소속 범주를 상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국가에 국한된 뿌리와 소속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며, 국가와 갖는 유대를 넘어설 것을 강조한다. 수사학자이자 철학자 팡 치아(Pheng Cheah)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은 친족과 국가와 맺고 있는 협소하고 맹목적인 유대 관계를 넘어 우주적 집합체에 소속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시민주의는 특수성을 초월하는 힘으로 설명되는 철학적 이성의 보편성을 구현한다.”³⁴⁾

이들은 국가를 비롯한 특정 공동체들과의 유대를 초월한다는 것은 그러한 소규모 공동체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잃을 위험부담을 감수할 뿐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는 의지를 수반한다고 논의한다.³⁵⁾ 강경한 세계시민주의자들은 세계시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애국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애국주의에 대한 보다 다층적 이해를 도모해보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개념임을, 단순히

33) Martha Nussbaum, “Toward a Globally Sensitive Patriotism,” *Daelalus* 137.3 (2008): 78-93, 79.

34) Pheng Chea, “Cosmopolitanism in Theory,” *Theory, Culture & Society* 23.2 (2006): 486-496, 488.

35) 위의 글.

공존하는 것을 넘어 서로 강화시켜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사 누스baum(Martha Nussbaum)이 지적했듯 애국주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 편으로는 관심과 의무 이행이 명백히 내부(자신)를 향해 있어, 개인이 자국에 충성심을 가지고 헌신하여 ‘좋은’ 시민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국가에 헌신하도록 이끈다.³⁶⁾ 그와 동시에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의무 이행 및 공동선을 위한 헌신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외부(타자)를 향한다. 이렇게 자신과 타자를 향한 충성심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적 차원의 평등과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쓴다는 점에서, 애국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이 지속되면서, 특히 외부와의 대면과 충돌을 경험하면서, 애국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외부인으로부터 자신 혹은 자기 집단을 구별하며, 기존의 사회 질서를 전복하려는 노력을 제지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³⁷⁾ 앞서 언급한 시민권의 포용적이면서도 배타적인 성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타집단에 대한 배제를 가져옴과 더불어, 자국 밖의 더 넓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지역적, 국가적,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 정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국주의의 왜곡된 실천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사회 구조적 분쟁 및 폭력을 해결하고 공생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세계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단지 비난하고 국가적 정체성

36) Nussbaum, "Toward a Globally Sensitive Patriotism," 79.

37) 위의 글.

및 국가와의 유대 관계, 그리고 애국주의의 정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적, 지역적, 문화적 가치 및 이익만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한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태도와 행위는 오히려 모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는 표면적으로 보여지고 해석되는 점 이상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사상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소속감의 형태를 대표하며, 타자에 대한 존중과 타자와의 연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상 및 목표를 공유한다. 철학자 쿠에임 아피아(Kwame Appiah)가 강조하였듯, 모든 인간은 여러 다른 규모의 집단에 속하여 삶을 영위하며, '더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 '잘' 살 때 '더 큰 규모'의 집단으로 시야를 넓히고 그 곳에서도 '잘' 사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³⁸⁾ 애국주의에서 강조하는 국가뿐 아니라 도시, 마을, 가족을 비롯한 다른 소규모 공동체 등 인류라는 큰 공동체보다 작은 집합체의 개인 및 집단은 모두 도덕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시민주의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과 문화적 가치가 간과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화적, 공동체적, 국가적 특수성의 가치를 인정하며 존중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세계시민주의는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보편적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와 문화가 정체성의 보존과 안보라는 명목 하에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한 보편 법칙의 자리를 찬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³⁹⁾ 특히 앞서 지적했던 현실에서 시민권이 보여준 배타적인 성격과, 애국주의의 의미가 왜곡되어 국가주의와 자문화중심주의로 이어

38) Kwame Anthony Appiah,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6), 29.

39) M. Ayaz Naseem and Emery J. Hyslop-Margison, "Nussbaum's Concept of Cosmopolitanism: Practical Possibility or Academic Delusion?" *Paideusis* 15.2 (2006): 51-60, 52.

져 온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현대 민주국가들은 국제화와 상호 수용 및 협력이 중요한 동향과 방향성으로 대두된 이래로도 자국의 가치와 문화, 규율에 치우쳐 있으며 타국에 배타적인 정치 체계를 보여 왔다.⁴⁰⁾ 기후 위기가 보여 주는 사회 구조적 불의 또한 왜곡된 애국주의로 인해 사회의 유기성과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이 망각되고, 타 집단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 역사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초국가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현실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 넓은 인류 동포와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목표 및 가치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개별 민주 국가의 테두리 안과 밖 모두에 개인이 연계되며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국가에 소속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더 넓은 범위의 소속감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애국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역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5)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역동적 균형: 기후 불의에 대한 대응

(1) 특수성에 주목하는 보편적 가치 추구

그렇다면 기후 불의의 현실을 마주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가 형성하는 보완 및 균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세계시민주의는 보편의 이름으로 통일된 규범을 강요하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다양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개별 국가, 특히 취약한 국가 및 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특수한 고통에 주목하여 지구적 차원의 공생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 자체와 더불어 그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과 이주 등이 국가 간 이해 관계와

40) Charles Taylor, "Why Democracy Needs Patriotism," In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119-121.

국경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지위의 배타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시민주의는 시민권을 비롯한 정치적 신분과 같이 소위 외부인을 소외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넘어, 모든 인간의 인격적 존중 및 지구적 차원의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로 왜곡되지 않고, 자국을 넘어 더 넓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국민들이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성찰하도록 도울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 불의는 진보하려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욕구는 자기 및 자문화, 자국에 관심이 머무르게 한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탐욕과 이기주의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다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선을 도모하기 위해 자국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사회 혁명가였던 주세페 마치니(Giuseppe Mazzini)가 지적했듯, 애국주의는 국제적 문제에 개어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⁴¹⁾ 국가가 주권과 자율성을 갖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지속되어야 할 의무이다.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도덕적 책임 의식이 있어야 더 넓은 세계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소규모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타집단에 대한 배타성을 인지해야 하며, 이를 문제시하고 시정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이 애국주의를 보완해줄 수 있다.

41) David G. Rowley, "Giuseppe Mazzini and the Democratic Logic of Nationalism," *Nation and Nationalism* 18.1 (2012): 39-56, 50.

(2) 변화의 영역

보다 구체적으로, 기후 불의의 현실에서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균형에의 추구는 개인 및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공동체와 개인에게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크게 인식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 및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① 인식적 측면: 도덕적 감수성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후 불의가 수반하는 사회 구조적 폭력에 대한 개인적, 공동체적 책임 의식, 즉 도덕적 감수성의 함양이다. 공동체적,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과 인간, 모든 인간과 인간, 또한 사회와 사회는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 존재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자국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착취로 이어져 이러한 소위 ‘환경 식민주의(environmental colonialism)’ 혹은 ‘생태 제국주의(ecological imperialism)’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왜곡된 애국주의에 기인한 국가적 성장의 과정과 결과를 돌아보아야 한다.⁴²⁾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 또한 ‘경제적 특권층’ 집단에 속할 수 있으며, 자연 및 타인의 착취에 일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특권층의 개념은 상대적이며 모호하다.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 적절한 종류와 양의 식량 및 필수품, 빈곤 등의 의미는 다층적이며 복잡적이기 때문에, 같은

42) Moe-Lobeda, *Resisting Structural Evil*, 37.

국가의 같은 계층의 개개인이라 할 지라도 스스로의 경제적 위치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⁴³⁾ 경제적 특권의 개념은 과소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 행태에 따라 자신을 특권층은 고사하고 취약 계층으로 부류하는 선진국의 일원들도 존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존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소비하기 위해 ‘더’ 빈곤한 지역의 천연 자원이 취해졌으며, 내가 소비함으로 인해 환경 위기에 일조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질 오염 및 해수면 상승, 식량 부족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태 제국주의’에 나 자신이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나의 책임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감정적 측면: 연민과 분노

이러한 공동체적, 개인적 성찰에서 필요한 요소는 인식을 넘어서는 감정의 영역에서의 변화, 즉 현실에 분노하고 타자에 대한 연민을 가질 줄 아는 마음이다.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분노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으로 이어지지만, 사회 불의의 현실을 마주할 때 분노의 감정 없이는 현실의 근본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적절한 상황에서, 한계를 정할 줄 아는 분노의 표출은 현실에 대한 저항과 변화에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⁴⁴⁾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람이 아닌 사회 불의 자체에 대한 분노가 비폭력 저항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하며, 이 기주의와 왜곡된 애국주의에 입각해 나 자신의 안위와 발전에 치우쳐 타자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스스로에 대해 분노하며 개인적, 공동체적 회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⁴⁵⁾ 또한 기후 위기로 삶이 무너진 약자들의 어려

43) 위의 글, 11.

44) Sonali Chakravarti, *Sing the Rage: Listening to Anger after Mass Violence*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128.

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연민은 분노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감정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대하기보다 삶의 주체적 참여자로 존중하며 지원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분노와 연민의 감정을 바탕으로 각 취약 계층의 입장에서의 애국주의, 즉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갖는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구체적 취약성에 주목하는 태도를 취함과 더불어, 그러한 특정에 대한 '지역적 맥락화와 해석'을 통해 서로 다른 공동체를 관통하는 세계적 가치와 규범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⁴⁶⁾

③ 제도적 측면: 공동체적 책임의식 및 법적 규제

다만 연민은 물리적, 정서적으로 보다 가까운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갖게 되는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민의 실천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국가적, 국제적 규범에 신중히 반영되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⁴⁷⁾ 구조의 개선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기후 변화의 보다 직접적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다. 세계시민주의는 국가적 특수성의 초월을 중요시하는 성격 때문에 국가적 규범 및 법규의 설립을 거부한다는 오해를 사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자국민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법을 통한 자국 안보 유지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곡된 애국주의를 지양하기 위해 세계시민주의는 현존하는 모든 법규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모든 국가적 법규를 연합시키는 보편 규범의 설립을 지향하며, 그러한 보편 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⁴⁸⁾ 초국가적 보편 규범은 단순한 선언 등의 형태가

45) Nussbaum, "Toward a Globally Sensitive Patriotism," 82.

46) Benhabib, "Claiming Rights across Borders," 691.

47) Nussbaum, "Toward a Globally Sensitive Patriotism," 82.

아닌 국제법 및 국제 조약 등의 형태로 시행에 대한 강제성이 수반 되어야만 개별국의 실제 상황에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위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연민과 분노는 개인적 차원의 성찰 및 개인적 상호작용에서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천연자원 및 영토를 빼앗기고 기후 변화로 인해, 또 생존의 수단과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들에게, 법적 보호 없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인적, 공동체적 자선을 통한 지원 또한 가치를 갖지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근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애국주의는 잘못 이해되고 적용될 경우 다수 혹은 중심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우선시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소외 계층은 왜곡된 애국주의로 인해 배제될 위기를 늘 안고 살아간다. 기후 변화와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애국주의는 타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⁴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타국의 영토 침략 및 강탈에 대한 금지법과 기후 난민에 대한 보호법 등이 강화되어 지속적인 기본적 생활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기후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와, 난민법의 개선 및 이행이 요구된다. 왜곡된 애국주의는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기도 하며, 외국인 혐오는 여러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새롭게 유입된 이주민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발생한다.⁵⁰⁾ 많은 국가에서 대다수의 기후 난민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법적 지위 없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 또한

48) Seyla Benhabib, *Reclaiming Universalism: Negotiating Republican Self-Determination and Cosmopolitan Norms*.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delivere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March 15-19, 2004, 114.

49) Nussbaum, "Toward a Globally Sensitive Patriotism," 83.

50) 위의 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주 국가는 난민의 지위 혹은 다른 정치적 지위의 부여를 통해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난민법의 불완전한 성격 및 불완전한 이행을 고려할 때, 법의 수립만큼 이행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 재고되어야 하며, 법의 이행 방식 및 정도, 효용성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나가는 말

기후 위기가 드러내는 구조적 폭력과 사회 불의의 문제는, 개인 및 집단 간의 보이지 않는 유기성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적, 제도적 책임에 대해 통합적인 고찰을 하도록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비판적 성찰을 하고 변화에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 모두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 적용되고 실천될 때 한계점과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세계시민주의의 이름으로 오히려 국가적 통제가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들을 고려할 때, 세계시민주의 실현의 현실성 및 애국주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회의적 입장이 등장하는 것도 그러한 현실적 한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러한 한계점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단순한 공존을 넘어 상호 보완적 관계로 향해야 하며, 그 기반에는 두 사상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가 역동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가는 과정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감수성 혹은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책임의 이행, 그리고 연민과 분노를 통한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변화를 가능케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여러 집단의 의견 수렴과 합의 도출에 머물지 않고, 기후

불의의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권력의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및 기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균형의 추구가 단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 발상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서울: 한국천주교회의, 2015.
- Appiah, Kwame Anthony.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6.
- Archibugi, Daniele. "Cosmopolitical Democracy." In *Debating Cosmopolitics*, ed. Daniele Archibugi. New York: Verso, 2003.
- Atapattu, Sumudu. "Climate change and displacement: protecting 'climate refugees' within a framework of justice and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1,1 (2020): 86-113.
- Benerjee, Kiran. "Re-theorizing Human Rights through the Refugee: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Global Justice," *Refugee* 27.1 (2010): 24-35.
- Benhabib, Seyla. *Reclaiming Universalism: Negotiating Republican Self-Determination and Cosmopolitan Norms*.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delivere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March 15-19, 2004.
- _____. *Cosmopolitanism and Democracy: Affinities and Tensions*. Lecture to the German Bundestag, delivered on March 13, 2009.
- _____. *Dignity in Adversity: Human Rights in Troubled times*.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1.
- Bosniak, L. "Citizenship, Noncitizenship, and the Transnationalization of Domestic Work." In *Migrations and Mobilities: Citizenship, Borders, and Gender*, eds. S. Benhabib and J. Resnik.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9.
- Chakravarti, Sonali. *Sing the Rage: Listening to Anger after Mass Violence*.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 Chea, Pheng. "Cosmopolitanism in Theory," *Theory, Culture & Society* 23.2 (2006): 486-496.
- Cole, Alyson and Estelle Ferrarese. "How Capitalism Forms Our Lives,"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22,2 (2018): 105-112.

Contorno, Lauren. "The Influence of Cosmopolitan Values on Environmental Attitud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Res Publica - Journal of Undergraduate Research* 17.1 (2012): 14-38.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pened for signature 28 July 1951, 189 UNTS 150 (entered into force 22 April 1954) ('1951 Refugee Convention').

DeLorey, Mary. "International Migration: Social, Economic, and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n *And You Welcomed Me: Migration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eds. Donald Kerwin and Jill Marie Gerschutz. New York: Lexington Books, 2009.

Heilbroner, Robert. "Technology and Capitalism," *Social Research* 64.3 (1997): 1321-1325.

John Paul II, *Sollicitudo Rei Socialis*, Encyclical Letter on the Concern of the Church for the Social Order, Vatican Website, December 30, 1987.

Marshall, Thomas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eds. Thomas H. Marshall and Tom Bottomore. London: Pluto Press, 1992.

Martin Luther King Jr., "A Christmas Sermon on Peace," sermon preached at Ebenezer Baptist Church, December 24, 1967.

McAdam J. and Limon M., Human Rights, Climate Change and Cross-border Displacement: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in Contributing to Effective and Just Solutions, Universal Rights Group, Policy Report, 2015.

Moe-Lobeda, Cynthia. *Resisting Structural Evil: Love as Ecological-economic Voc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3.

Morris, Lydia.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Ideals and Actualiti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3.1 (2012): 39-46.

Myers, N. "Environmental Refugees," *Population and Environment* 19.2 (1997): 167-82.

Naseem, M. Ayaz and Emery J. Hyslop-Margison, "Nussbaum's Concept of Cosmopolitanism: Practical Possibility or Academic Delusion?" *Paideusis* 15.2 (2006): 51-60.

- Nussbaum, Martha. "Toward a Globally Sensitive Patriotism," *Daelalus* 137.3 (2008): 78-93.
- Rana, Fazale R. with Kenneth R. Samples, *Humans 2.0: Scientific,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on Transhumanism*. Covina: Reasons to Believe, 2019.
- Rockström, J. et al., "Planetary boundaries: exploring the safe operating space for humanity," *Ecology & Society* 14.2 (2009): 1-32.
- Rowley, David G. "Giuseppe Mazzini and the Democratic Logic of Nationalism," *Nation and Nationalism* 18.1 (2012): 39-56.
- Sharon, Todd. "'Like Travellers Navigating an Unknown Terrain': Seyla Benhabib on Rights and the Borders of Belonging," *Utbuilding & Demokrati* 15.1 (2006): 109-118.
- Taylor, Charles. "Why Democracy Needs Patriotism." In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119-121.
-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 Korean, 1948.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 Walzer, Michael. "The Moral Standing of States: A Response to Four Critic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9.3 (1980): 209-229.
- Wallerstein, Immanuel. "Neither Patriotism nor Cosmopolitanism." In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ed. Martha Nussbaum, Boston: Beacon Press, 1996.
- Weichlein, Siegfried. "Cosmopolitanism, Patriotism, Nationalism." In *Unity and Diversity in European Culture c.1800*, eds. Tim Blanning and Hagen Schulze, London: The British Academy, 2006.

논문투고일: 2023년 06월 27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7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기후 위기를 둘러싼 구조적 폭력의 현실에서 개인 및 집단이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보다 소외되고 있는 집단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세계 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역동적 균형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국가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애국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애국주의가 타집단을 배제하는 왜곡된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고 세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이 국내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할 때, 세계시민주의는 애국주의와 서로를 보완하며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 두 사상이 추구하는 균형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주체적 사회 참여로의 지원을 위해 어떻게 도덕적 감수성의 회복 및 법적,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후 변화, 구조적 폭력, 공생, 세계시민주의, 애국주의
